

## 11. 하멜, 난파(難破)한 곳이 어딘가<sup>15)</sup>

“밤 1시경 망을 보던 사람이 소리쳤다. ‘육지다, 육지다! 우리는 단지 머스켓 총의 사정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어둠과 폭우 때문에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곧 닻을 내리고 배를 돌리려 했다. 거친 파도와 심한 바람은 닻을 지탱할 수 없게 하였다. 그때 갑자기 배가 바위에 부딪쳤고 세 번이나 충돌했다. 배 전체가 산산 조각나 버렸다. 갑판 밑에 있던 사람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여 죽었고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고 파도에 휩쓸려 버리기도 했다.”

하멜(Hamel)난파일기는 스페르웨르호가 제주도의 해안에 조난할 당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64명의 선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36

---

15) 『한라일보』(삼각봉), 2003. 08. 07 (목), 논설위원.

명이었다.

1653년 8월 15일 밤, 정확하게는 16일 꼭두새벽의 일이었다.

올해는 이들 네덜란드 선원들이 제주도에 표착한지 3백 50주년이 되는 해다. 남제주군은 이를 기념하여 안덕면 용머리해안에 하멜상선과 전시관을 개관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20억 원을 들인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우 뜻 깊고 반가운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당돌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

17세기 중엽 이들의 표착은 드물게 보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뒷날 하멜 일행이 탈출에 성공, 표류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계의 이목을 모아온 사건이다. 이런 역사적 기념사업인데 이처럼 무모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다.

하멜 일행이 제주도 어디에 난파하였는가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드러난 것만 보아도 여러 주장들이 대두돼 있다.

- ① 중문 성천포(星川浦)설/
- ② 중문 강정(江汀)설/
- ③ 대정읍 하모리 멜캐(鰐浦<sup>16</sup>)설/
- ④ 안덕면 용머리설/
- ⑤ 대정읍 신도리 도원포(桃源浦)설/
- ⑥ 한경면 고산리 한장동설/

16) 신문에는 약포(鰐浦)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 편자가 삽입함.

⑦ 차귀진 대야수(遮歸鎮 大也水)설 등 제 나름대로 주장들이 대립돼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검증된 것은 없다.

더구나 ‘용머리설’은 표류기에 나타나는 거리나 위치를 볼 때 전혀 맞지가 않는다.

위의 주장 가운데 대야수, 한장동, 도원포설 등은 모두 『지영록(知瀛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저자 이익태(李益泰)의 제주목사 재임기간이 1694년 7월부터 2년 2개월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하멜이 표착한지 불과 41년밖에 되지 않는 때의 일이다.

무게를 실어줄만한 기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한장동이라고 한다면 바로 차귀진 코앞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무인도가 아닌가 착각할 형편이었고 이틀만에야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곳은 아니다.

표류기를 보면 난파지에서 대정읍성까지 그리고 모관(제주 성내)까지 거리와 시간이 나타나고 지형에 대한 설명도 나타난다. 그곳이 난파지인가 아닌가는 곧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고 지난 1999년 10월 개최된 하멜표착지에 대한 학술세미나에서도 지적되었던 일이다. 당국이 이 방면의 연구자들에게 공동조사를 시켰더라면 거의 정확한 표착지가 도출될 수도 있는 문제다.

왜 그 같은 수순을 밟개고 몽그적거리고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사업이 어디 우격다짐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 그랬다고 그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르친 사업으로 지탄받을 것이 아닌가.

이제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문화인식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